

가계 재무상태와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 and Management Behavior Performance on the Financial Satisfaction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부교수 김 경 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 수 박 명 숙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비자의류학과

박사후 과정 정 운 영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Kyung-J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Kyungju cam.

Professor : Park, Myung-Sook

Dept. of Consumer & Textile Scie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 Jeong, Woon-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was related with the financial condition of households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n order to examine this relationship, interne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598 housewives.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 and monthly debt repayment had only indirect effects on the financial satisfaction while monthly saving had both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t indicates that financial satisfaction level varies with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even though they have the sam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Specifically, the division of financial roles and problem solving style between husband and wife affected the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 주요어(key words) :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재무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1. 서 론

한 가계가 해당 가계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기대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무만족도의 정도는 그 가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가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기타 사회활동 모두에 인간의 노력과 시간외에

경제적인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조사(동아일보, 2001)에 의하면 우리 나라 30, 40대 남성 중 60% 이상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스트레스, 취업문제 등 직·간접적인 경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drew와 Withey(1976), Porter와 Garman(1992) 등의 연구결과도 생활만족에 대한 재무만족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무만족도는 가계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수준

* 주저자 : 김경자(E-mail : kimkj@www.cuk.ac.kr)

과 경제적인 기대수준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객관적인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가계의 가치관, 생활표준, 재무목표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계가 보유한 자원의 실질적 효용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적인 수준 외에도 그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된다. 즉, 가계가 가치와 동기, 재무목표, 의사소통 기술 등의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소비하는가 하는 재무관리 행동이 재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가계가 가계 재무만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계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문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동안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주가계 관리자인 주부들의 금전관리 행태나 소비행태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경제적 자원수준의 향상 방안 외에 재무문제에 관련된 태도나 만족도, 또는 실질적인 재무관리 지침을 제공하려는 재무설계 및 재무상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재무만족도에 대한 부부간 또는 가족간 재무의사소통의 효과와 관련된 주제가 부상하고 있다.

재무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재무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재무상태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 외에도 재무관리 행동이 가계의 자원수준과 재무만족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Hira(1987), Titus 등(1989), Mugenda 등(1990), 이종혜(1993), 이상협(1999), 안승철과 김민희(1999) 등 많은 기존 연구들은 재무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재무상태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으나 몇몇 다른 연구들은 동일한 재무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원의 재무관리 행동에 따라 가계의 재무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김재경과 문숙재(1992), 김정훈(1995), 임정빈(1995), 김효정(2000) 등에 따르면 재무만족도나 경제적 갈등은 가계가 보유한 자원의 절대적 수준 외에도 가계 구성원들의 금전사용방법, 소비행태, 금전관리태도, 의사소통 빈도 및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정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재무관리 행동 영역을 예산설정이나 지출기록, 투자, 위험관리, 신용관리 등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그 영역에서의 주부의 행동성적을 평가하거나 그 성과가 어떻게 주부의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의 재무관리행동 영역을 살펴볼 때 재무관리 행동의 주체는 주부라기보다는 부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한 배우자의 재무관리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의 재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의 재무관리행동 성과는 예산설정이나 위험관리 등의 관리영역별로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역할분담, 자원배분 및 소비행태, 갈등 해결방식, 그리고 이들 문제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의사소통 양식 등 자원관리행동 방식별로도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가계의 자원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재무지표나 재무관리행동 방식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 하에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객관적인 재무상태가 유사한 경우 재무관리 주제인 부부간의 재무관리행동 방식이 한 배우자의 재무만족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 재무상태, 그리고 부부공동의 재무관리행동 방식에 대한 주부의 평가가 주부의 재무만족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재무상태가 유사한 경우 재무관리행동 방식 중 어떤 하위 항목이 재무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재무만족도와 재무관리행동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 접근법(system approach)은 한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계 관리 행동을 투입, 변환, 산출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이들 요소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체계(system)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기능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통합된 집단을 의미한다. 한 가계는 투입, 과정, 산출로 구성된 요소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체계 접근법은 투입요소가 어떠한 관리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 산출요소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의 자원과 요구를 가진 가계일지라도 관리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체계 모델은 가계의 재무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재무관리행동의 경험적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가계가 재무만족도라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관리 과정을 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인 투입, 변환, 산출로 개념화하여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요소란 체계의 산출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원관리자 같은 집단의 내부적 요인을 말한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가계 자원과 요구(demand)를 주요한 투입요소로 보았는데, 자원은 가계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재무관리체계에서는 소득, 저축액, 부채, 자산, 주거소유형태 등의 경제적 자원을 주로 의미한다. 요구는 자원 이용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로서, 재무관리체계에서 요구란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과 심리적 기대 및 성향 등이 이에 속한다.

변환요소는 투입요소를 관리하여 산출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다. 가계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가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취해야 할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며 지속적인 평

가를 통하여 관리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변환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가계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산출은 가계관리행동의 결과로 생산된 물질, 에너지, 정보를 말한다(Heck & Douthitt, 1982). 산출이 기대했던 결과나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가 관리행동의 성공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은 가계구성원들의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재무관리 행동의 산출에 해당하는 재무만족도는 이처럼 가계의 자원과 요구 그리고 자원관리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평가하도록 요구받을 때 왜 그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수준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부분 중류층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가계 재무자산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재무자산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관리행동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 요구란 화폐에 대한 철학, 자아존중감, 그리고 개인의 성장배경 등 여러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Headey(1993)는 소득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의 강도를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소득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소득과 경제적 복지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존재했지만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urnham과 Argyle(1998)도 재무자산과 복지감 또는 재무자산과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계수가 .15에서 .20 사이로 비교적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가계 재무관리의 최종목표인 재무만족도를 설명하면서 재무관리 행동보다는 평가자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Furnham과 Argyle(1998)는 재무자산과 자원수준에 대한 만족감의 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리적 중개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적응성(adaptation)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승하면 그것만으로 상당 기간 만족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곧 새로운 소득수준에 적응해서 소득상승의 효과를 오래 즐기지 못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사람들이 절대적 소득수준보다는 준거집단에서의 자신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자신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소득계층끼리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수준이 아주 높더라도 그들의 상대적인 자원 수준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득에 대한 만족감도 절대적 소득 수준만큼 높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득(화폐)의 한계 효용도 체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상승은 모든 계층에서 그 증가량과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특히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화폐의 한계효용이 급격히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의 소득증가는 재무만족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요인은 소득상승은 만족감과 아울러 걱정거리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가령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관리와 관련된 노력 외에도 돈문제와 관련된 통제불가능한 일들을 더 겪게 되기 때문에 소득상승에 따른 순수 만족감의 정도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체계 접근법이나 Furnham과 Argyle(1998)의 설명들은 동일한 재무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계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재무관리 행동에서의 차이가 서로 다른 궁극적인 재무만족도나 생활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무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은 결국 서로 다른 형태의 재무자산관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 때 객관적 재무상태를 제외하고는 가족내에서의 화폐 획득과 소비, 배분, 그리고 처분에 관련된 여러 재무관리 행동 방식들이 어떻게 다른가가 궁극적으로 재무만족이나 생활만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가계관리 행동 모형에 대한 설명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발달되어 왔으나(Deacon & Firebaugh, 1988; Gross, Crandall & Knoll, 1980) 그 중에서도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형은 가계재무관리의 의사결정에 포함된 각 요인의 상호관계를 제시할 수 있고, 각 관리행동 영역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 및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Heck, 1983; 김순미, 1993)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김연정, 김순미, 1991; 김순미, 1993; 홍향숙, 1997; Hira, 1997; Parrotta & Johnson, 1998; 임정민, 조미환과 이영호, 1998; 김효정, 1999; Titus, Fanslow & Hira, 1989; Mungenda, Hira & Fanslow; 1990).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소득과 순자산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무만족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ugenda, Hira, Fanslow, 1990; 이종혜, 1993; 이상협, 1999; 안승철, 김년희, 1999). Hira(1987)와 Titus 등(1989)은 재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논의하려고 하는지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저축액이 많을수록,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재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1987)의 연구에서는 총저축액이 많을수록,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부채상환액이 적을수록 재무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객관적인 재무상태 외에도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감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지도, 자원적정 인지도와 같은 주관적 특성들과 부부간 의사소통도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Davis와 Helmick(1985)에 따르면 재무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소득과 순자산과 같은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지표보다도 재무상태에 대한 변화 인식과 개선에 대한 외부적 요구(demand)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숙(1996)의 연구도 객관적 요

인인 가계의 소득수준과 저축수준 뿐 아니라 재정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Mugenda 등(1990)은 부부간 의사소통이 재무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최근 연구들(김정훈, 1995; 김효정, 1999 & 2000)은 부부간 의사소통빈도를 재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재경과 문숙제(1992)는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이 소득의 절대액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사용방법, 소비유형, 주소득자 유형, 금전관리태도 등의 차이에서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실제로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재무관리에서의 갈등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재무만족도가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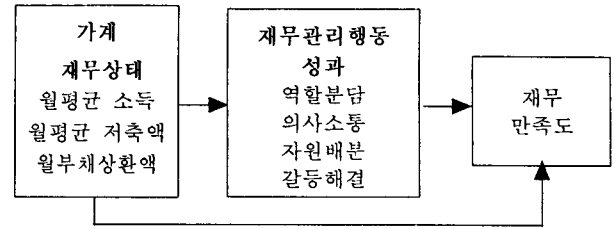
위의 연구들은 객관적인 재무상태 외에도 재무관리행동의 여러 요소가 산출인 가계의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Porter & Garman, 1993; Fitzsimmons, Hira, Bauer & Hafstrom, 1993; Godwin & Carroll, 1986; 배희선 등, 1996; 홍향숙과 이종혜, 1999)은 재무관리행동을 자산 및 지출기록, 신용관리, 위험관리, 소비습관 검토 등 여러 하위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그 행동성적을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재무관리 행동 방식, 즉 변환과정의 일반적 행동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아니며 또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 등 한 두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관리행동은 가계 구성원에 대한 재무자원의 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위에서 설명한 가계 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는 행동이다. 구체적으로 그 행동양식은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가족원간 역할 분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자원배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갈등해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재무관리 행동 방식별로 행동의 성과를 측정한다면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과 같은 대체변수보다 재무자원과 재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인 가계 재무상태와 부부간 재무관리행동 방식이 주부의 재무만족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 그림 1 > 연구모형

특히 재무상태가 유사한 경우 재무만족도가 어떤 재무관리행동 방식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 그림 1 >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 기입형 질문지로서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객관적 재무상태, 재무관리행동 성과 및 재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재무관리행동성과는 가계 내 재무관리의 각 영역에서 부부가 관련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부의 주관적인 평가로, 재무만족도는 가계의 일반적인 재무상태에 대해 주부의 만족도로 정의한다.

객관적 재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저축액 그리고 월평균 부채상환액을 사용하였다.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이 있으나 자산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주부들 입장에서 시가를 측정하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어 제외시켰다. 저축과 부채는 가계의 단기, 장기 목표를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위험에 대비한 재정상태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계의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재무관리 행동은 Deacon과 Firebaugh(1988), Waddell(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역할분담, 의사소통, 자원배분, 그리고 갈등해결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관리행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역할분담은 '집안의 전반적인 재무문제에 대해 부부간에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의사소통은 '가족들의 돈쓰임이와 다른 재무문제에 대해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로, 자원배분은 '집안의 자원이 부부간에 무리없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로, 그리고 갈등해결은 '집안에 재무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간에 효과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다'(1점)에서 '매우 높다'(5점)까지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

무관리 행동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무만족도는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불만스럽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여성 포탈 사이트를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 아줌마 닷컴(www.azoomma.com)의 회원 30만 여명 중에서 선정된 주부들이다. 설문조사는 2001년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기간 중 총 619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이 중 50대 이상의 응답자 자료와 내용기재가 부실한 자료를 21부를 제외한 59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수들간의 관계는 경로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고졸 이상의 20, 30대 젊은 주부들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39세가 59.9%로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주부가 9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거의 100%가 고졸 이상이었는데 고졸이 38.8%, 대졸이 39.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소득은 151만원~250만원이 37.6%, 150만원 미만이 26.9%, 251만원~350만원이 25.4%로 비교적 고른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저축액은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월부채상환액은 10만원 미만이 49.5%로, 자녀수는 2명이 5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재무관리 행동성과 재무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2>와 같다. 재무관리 행동성과에 대한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 중 3.49로 중간점인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조사 대상 주부들이 부부간 재무관리행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는 ‘의사소통’과 ‘자원배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재무만족도는 평균 2.91(표준편차 .94)로서 중간점수인 3점 ‘그저 그렇다’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98)

변 수	범 주	빈 도(%)
연 령	29세 이하	180(30.1)
	39세 이하	358(59.9)
	49세 이하	59(9.9)
학 령	중졸	5(0.8)
	고졸	232(38.8)
	전문대	124(20.7)
	대학이상	237(39.6)
월평균소득	150만원 미만	161(26.9)
	250만원 미만	225(37.6)
	350만원 미만	152(25.4)
	350만원 이상	59(9.9)
월평균저축액	25만원 미만	156(26.1)
	50만원 미만	191(31.9)
	100만원 미만	179(29.9)
	100만원 이상	71(11.9)
월부채상환액	10만원 미만	296(49.5)
	30만원 미만	127(21.2)
	50만원 미만	65(10.9)
	50만원 이상	110(18.4)
자녀수	없음	69(11.5)
	1명	179(29.9)
	2명	321(53.7)
	3명 이상	29(4.8)

<표 2>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대한 일반적 경향(N=598)

문 항 내 용	평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3.30	.96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의사소통	3.64	.97
부부간 자원배분의 공평성	3.63	1.14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갈등해결	3.38	1.06
전체 재무관리행동 성과	3.49	1.03

<표 3> 경로모델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수표(N=598)

	월평균 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부채 상환액	재무 만족도	재무관리 행동성과
월평균 소득	1.000	.612*	.156**	.248**	.113**
월평균 저축액	.612**	1.000	-.055	.349**	.177**
월부채 상환액	.156**	-.055	1.000	-.111**	-.134**
재무 만족도	.248**	.349**	-.111**	1.000	.457**
재무관리 행동성과	.123**	.187**	-.153**	.450**	1.000

** p<.01

3. 가계 재무상태, 재무관리행동 성과와 재무 만족도

가계의 객관적 재무상태와 부부간 재무관리행동성과가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월평균 저축액 및 월부채상환액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월평균 저축액과 월부채상환액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재무만족도는 가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세 변수 및 재무관리행동성과 점수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표와 요소들간의 인과효과 분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 저축액과 월부채상환액을 통제했을 경우 재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다만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0$). 즉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의 주부들은 부부간 재무관리 행동성과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재무만족도도 높았다. Parrott와 Johnson(1998), 계선자와 유을용(1999), 이종혜(1993), 이상협(1999), 안승철과 김년희(1999) 등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소득은 재무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연구들은 부부간 재무관리행동 성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효과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재무관리행동 성과를 통제했을 때 재무만족도에 대한 소득의 직접효과가 사라진다는 결과는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재무관리 모델에서 변환과정의 중요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며 아울러 Furnham과 Argyle(1998)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월평균 저축액은 재무관리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beta=.052$)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beta=.28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부채상환액이 낮을수록 주부들은 재무관리행동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8$), 재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효정(1999), 김정숙(1996), 주인숙과 이연숙(1996), 임정빈 등(1998)의 연구에서 저축액이 재무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또는 최소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월평균 저축액이 높고 월부채상환액이 적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계가 안정되어 있고 재무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이 적다는 의미이며 그런 면에서 부부간 역할분담이나 의사소통 등 자원관리행동 성과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 경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표(N=598)

	재무관리행동 성과		재무 만족도	
	B	β	B	β
월평균 소득	.05665	.088	.06320	.058
월평균 저축액	.08512**	.152	.273***	.285
월부채상환액	-.00115***	-.142	-.0001	-.045
재무관리행동 성과			.584***	.340
R2	.066**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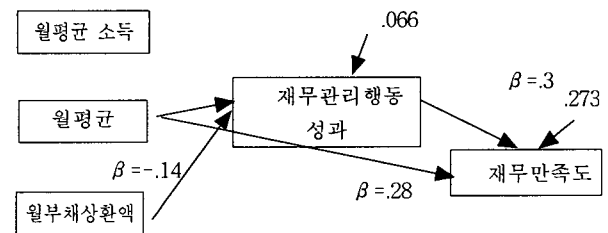
** p<.01 *** p<.001

<표 5> 체계요소간의 인과효과(N=598)

	총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t값)	간접효과(t값)
월평균 소득	.088	.058 (1.356)	.030(2.590)
월평균 저축액	.337	.285*** (6.624)	.052(4.000)
월부채상환액	-.093	-.045 (-1.125)	-.048(-5.517)
재무관리 행동 성과	.340	.340*** (9.357)	

*** p<.001

한편 부부간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주부일수록 재무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340$), 재무관리 행동 항목 중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부부의 역할 분담'과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갈등해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무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가계 재무문제에 대해 남편과 부인이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갈등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재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1 *** p<.001

<그림 2> 재무만족도의 인과모형(N=598)

부부간 재무관리행동 하위 항목 중 의사소통은 김정훈(1995), 김효정(1999, 2000)의 연구에서 재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측정된 것은 부부간 의사소통 빈도인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것은 부부간 의사소통 성과에 대한 주부의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외에

역할분담과 자원배분, 갈등해결 등을 통제된 후의 의사소통 성과의 영향을 측정했기 때문에 부부간 역할분담이나 갈등해결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 주부의 경우 의사소통이 독립적으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 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N=598)

재무관리행동 성과	B	β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3460***	.352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의사소통	-.0490	-.051
부부간 자원배분의 공평성	.0436	.053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갈등해결	.1890***	.213
상수	1.154	
R ²	.244***	

*** p<.001

관리의 주체가 주로 주부인 것으로 가정되어 왔기 때문에 주부 본인의 관리행동이 본인의 재무만족도 또는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재무관리 영역은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가정관리의 다른 영역에 비해 남편이 관리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적인 관리 행동이 각 배우자의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부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부간의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구체화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3월 27일

【참 고 문 헌】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저축액, 월부채상환액 등 가계의 객관적 재무상태 지표와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대한 주부의 평가가 주부의 재무만족도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부 598명을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하여 그 요소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부의 재무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부부의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대한 주부의 평가는 '다소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관리행동 성과점수를 통제했을 때 기존 연구에서와 달리 소득은 재무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다는 월평균 저축액과 월부채상환액이 재무만족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객관적인 재무상태지표와 아울러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재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는 동일한 재무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무관리행동에 따라 재무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무관리 영역에서의 체계모형(system approach)의 적정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투입요소만큼 변환과정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변환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투입요소로 최종적인 산출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학습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무관리행동 항목 중 재무문제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갈등해결 방식이 재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 자신의 관리행동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의 자원관리행동에 대한 평가가 한 배우자(주부)의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는 가정자원

계선자·유윤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1), 35-50.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 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11(2), 195-207.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정훈(1995).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14.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_____(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 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와 재무관리 행동과 재정만족도-화폐관리 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 준비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안승철·김년희(1999).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3(7), 111-125.
 양정선(1996). 산술적 지략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엽(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주인숙 ·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5.
- 최윤지(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가계의 재정상태분석-중년기와 노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 이종혜(1999). 개인 · 가계 ·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2-24.
- Andrew,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ion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 Davis, E. P. &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 Firebaugh, F. A.(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 Fitzsimmons, V. S., T. K. Hira, J. W. Bauer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Furnham, A. & Argyle, M.(1998). *The Psychology of Money*. Routledge. 266-270.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Godwin, D. D. & Carroll, D. 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Headey, B.(1993). An Economic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97-116.
- Heck, R. Z.(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Heck, R. Z. & Douthitt, R. A.(1982). Research modelling implication of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65-276.
- Hira, T. K. (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19-22.
- Hira, T. K. (1997). Financial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differences by ag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1, 271-290.
- Hira, T. K. & Mungenda, O. M.(1998). Predictors of financi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75-83.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Porter, N. M. & Garman, E. 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Prather, C. G.(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Waddell, F. E.(1998) *Financial Portfolio-Your Financial Map and Compass*. Auburn: Genesis-the Financial Services Press.